



순천 문화의 거리

역사·문화 흐르는 상권 만들기 순천 원도심 쇼핑 즐거워진다

랜드마크·원도심 둘레길 조성
순천부읍성터 복원사업도
2016년까지 160억원 투입
'상권활성화재단' 출범 할기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의 성공 신화, 순천 상권 활성화로 잇는다
순천시가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개최 등으로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 상권 살리기에 나섰다. 관광객이 단순히 순천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순천에 머물며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펴나. 시는 관광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 원도심 상권을 살리고, '상권활성화 재단'을 출범하는 등 상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원도심 상권 살리기 = 중소기업청이 공모한 '원도심 상권 활성화구역'으로 순천시가 지난 3월 선정돼 사업비 160억5000만원을 확보하게 됐다. 원도심 상권 활성화구역 사업은 순천시 원도심을 '걷고 싶고, 즐기고 싶고, 사고 싶은 대표 쇼핑공간'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다.

상권활성화 사업의 목표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숨쉬는 원도심 상점가 ▲기능별 연계를 통한 공동체 의식함양 ▲추억과 믿음이 있는 안전한 상권조성 ▲다양한 계층과 공존하는 공간조성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 사업계획을 수립, 활성화구역 주민 및 상인 의견 수렴과 순천시의회 의결절차를 거쳐 지난달 7일 중소기업청에 '201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사업'을 신청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2월 27일 현장평가와 3월 17일 중소기업청 경영현대화사업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9일 선정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순천시는 향동과 중앙동 일대 시장 1곳(중앙시장)과 상점가 5곳(황금로페션가, 문화의 거리, 원도심상점가, 옷장인점상점가)을 대상으로 원도심을 하나의 상권활성화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대상 면적은 17만5839㎡ 규모이다.

원도심은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밀집돼 있는 순천 최대 상권이지만 신도시개발과 대형 유통업체 진출로 인해 원도심 상권전체가 위축됐다.

사업은 시설분야 원도심 랜드마크를 비롯해 순환형 테마거리인 '원도심둘레길' 조성, 열린마당, 순천부읍성(順天府邑城) 터복원, 경영분야 세부 사업계획 수립, 상권 관리기구운영, BI개발, 공동 마케팅, 지역문화행사를 통한 랜드마크 사업, 원도심 페스티벌,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등 총 10개 사업으로 진행하게 된다.

순천시 상권활성화 구역도



예산은 경영분야 18억원과 시설분야 142억5000만원이며, 지난 3월 착수해 오는 2016년 12월까지 3년간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상권활성화재단' 출범 = 비영리재단법인 '순천시 원도심 상권관리기구'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재단도 설립됐다. 순천시 지난 8일 문화의 거리 청소년수련관 광장에서 상권활성화재단 출범식을 했다. 이날 출범식은 천사(1004)의 몸짓, 문화예술공연, 은행나무 아래로 전시행사, 프리마켓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천사(1004)의 몸짓은 '순천 시대를 다시 뛰게 해주세요'라는 주제로 어린이, 청소년, 시민 1004명이 참가 희망의 상징 인간 노랑 플라시 몸을 연출했다. 상권활성화 재단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3년간 1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상권 통합브랜드 구축 ▲신활력 증진 ▲지역커뮤니티 육성 ▲마케팅 혁신사업 등 4개 분야 15개 핵심 경영사업을 추진한다.

경영분야 전략으로는 사업구역내 시장과 상점가별 차별적 요소와 보완적 요소를 결합해 각 기능별 연계 상권으로 조성하며, 골목골목과 중앙시장, 중앙·국도극장 등 40~50대층의 추억의 거리를 만들어 최대 소비계층을 끌어들이기 계획이다. 또 순천부읍성터 복원 등 테마거리 조성을 통한 지역상권과 문화, 역사가 결합하는 공간을 조성하게 된다.

시설분야 전략으로는 문화의 거리 문화시설과 함께 역사성을 수용한 상권활성화 구역 특화사업을 벌이고, '원도심 둘레길'을 조성해 문화·쇼핑 등의 다양한 기능을 연결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상권활성화 사업을 촘촘히 추진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박선진기자 eikim@

순천농협 남도김치, 전국 최우수김치 8개 브랜드 선정

순천농협(조합장 이광하)에서 생산하는 남도김치가 최근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의 '2014년 배추김치 품평회'에서 전국 최우수김치 8개 브랜드로 선정됐다.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5월에 배추김치 업체로부터 56개 제품을 신청받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에 걸쳐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품질평가(색택·향미·조직감·외관) ▲위생평가(공장 입지·작업장·보관시설, 용수) ▲농업연계성(우수원료·계약재배·국산 원료사용) ▲소비자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권역별로 1개씩 최우수김치 브랜드를 선정했다.

선정된 제품은 전남권 순천농협 남도김치(배추김치)를 비롯해 경기권(파주시·도미솔김치), 강원권(평창군·평창후래슈푸드 프리미엄 포기김치), 충청권(청원군·천년포기김치), 충남권(세종시·약선 포기김치), 경북권(안동시·에안촌 맛있는 포기김치), 경남권(김해시·진선미 김치), 전



북권(진안군·전주찬방 유기 포기김치) 등 8개 브랜드이다.

이광하 조합장은 "소비자들이 선택한 남도김치의 명성에 걸맞게 앞으로도 좋은 원료와 위생을 최고로 생각하고 명품 김치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1년의 역사를 지닌 순천농협 남도김치는 100% 국내산 원료와 1년이상 숙성된 멸치젓갈을 자가제조해 지역특색에 맞게 생산된 제품으로, 미국·일본·캐나다 등지에 수출되는 등 국내외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순천=김은중기자 eikim@

순천시립도서관 내일 임영신 작가 초청 인문학 강좌

순천 시립도서관은 20일 오후 7시 연향도서관에서 공정여행(Fair Travel) 임영신(사진) 여행작가를 초청해 '새로운 여행의 역사'라는 주제로 시민 인문학 강좌를 갖는다.

이번 강좌는 여행대상국의 인권과 환경을 보호하고 문화를 존중하는 공정여행에 관한 이야기로 여행에서 만나는 이들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고, 여행에서 쓰는 돈으로 어떻게 그들의 삶에 보탬이 되고, 그곳의 자연을 지켜주는 양심여행이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 들려준다.

또한 국내외 여행객이 증가하는 오늘날 도시여행에 대한 바른 자세를 정립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가까운 도서관



에서 3회(5000원) 또는 1회(2000원) 티켓을 구입하면 된다.

미리 읽어올 책으로는 '희망을 여행하라'(출판사 소나무 펴냄)로 책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좋은 책 할인권'으로 지정된 서점에서 30% 할인받아 구입할 수 있다.

순천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강좌를 통해 시민들이 각국을 여행함에 있어 여행국의 인권과 환경, 문화 등에 예의를 갖추는 윤리적 행동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기자 eikim@

순천대 가든문화인력양성사업단, 경로당에 정원 조성

순천대학교 가든문화 융·복합 전문인력양성사업단(단장 조경학과 조남훈 교수·이하 사업단)이 최근 순천시 덕암동 경로당에 정원을 조성했다. 정원은 신도시 주변에 위치한 전통마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마을마당의 개념으로 식물 및 재료 선정, 배치에 이르기까지 이용의 편리성 및 관리 용이성을 고려해 만들어졌다.

순천시와 사업단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지난 4월부터 ▲힐링가든 조성 및 관리(20명) ▲월예복 지교육(25명) ▲가든조성 및 관리(20명)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덕암동

경로당 정원은 정원의 계획·설계·시공·관리에 이르기까지 15주동안 1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가든 조성 및 관리 교육생들이 실습과정의 하나로 조성했다. 특히 순천시 공익녹지사업소에서 실습부지와 일부 예산을 지원해 도시내 방치된 공간에 정원을 조성함으로써 부시간 협력을 통한 교육훈련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한편 순천대 가든사업단은 순천만정원과 연계해 정원문화산업의 육성을 목표로 2013년부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순천=김은중기자 eikim@



'상권활성화 재단' 출범식

※ 이 제품은 의료가 아니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2014-GN1-36-0110

가격부담을 속 시원하게 덜어드립니다!!

대한보청기

맞춤 렌탈

수백만 원짜리 보청기, 한달 3~4만원으로 가능합니다!!

- 첫째, 한달 3~4만원!!
- 둘째, 전부 무료
- 셋째, 맞춤 귀속형

고가의 보청기를 가격 부담 줄여 사용
수백만 원짜리 고급·고가 보청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평생1회가입비는 표준 모델 기준 : 242,000원입니다.

무료 A/S, 무료 배터리, 무료 청력검사, 무료 테스트, 무료 맞춤 상담...

보청기 관리를 위한 모든 재한 서비스가 전부 무료입니다.

대한보청기의 믿을 수 있는 제품과 기술
개인 청력에 딱 맞게 아주 속 시원히 대화, TV, 전화 등 다양한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광주본점 지금 상담중!! 062)430-8900

순천·여수 본점 지금 상담중!! 061)741-4880

전주본점 지금 상담중!! 063)251-4999

대한보청기 전국 직영 센터

대한보청기 DAEHAN HEARING AID www.maxo.co.kr

◆강안본사 02)2248-5600 ◆종로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점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관악본점 02)3285-7600 ◆여의도본점 02)761-8883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45-2006 ◆경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북구(칠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김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울산본점 052)256-9050 ◆마산·창원본점 055)222-305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순천본점 061)741-488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